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라 [히브리서 11:32-12:3]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도다 33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1-3은 우리에게 마라톤을 연상시킵니다. 장거리 달리기에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도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확신과 힘을 찾습니다. 오늘 주일설교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네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1. 결정력, 2. 집중력, 3. 동기부여.

1) 히브리서 12:1에서 우리는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에 진실하심을 입증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 경주를 지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경주를 달릴 때 경주를 늦추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늦추는 가장 큰 짐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덧과 같이 우리를 옮겨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해서 늦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설교본문 2절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분 안에서 도움과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2) 우리가 경주를 달릴 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에게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찾습니다. 그 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며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또한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 분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레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분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사역에 결과가 가져다 줄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분께 집중합니다. 이것

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3)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보내진 원래 수신자들은 점점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 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나갈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오늘 설교본문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모든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분을 그 분의 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확신합니다.